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저~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교포사목 시절 알고 지내던 미국인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에 능숙해서 종종 미사를 부탁하기도 하고 함께 봉헌하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미사를 주례할 때면 항상 분심에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던 신부님이지만 참회예절 때는 항상 “저~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과 감사기도에서도 예외 없이 전능하신 분은 저~능하신 분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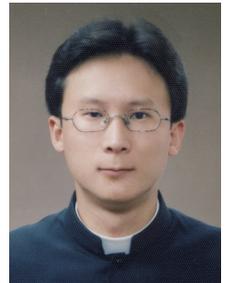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하느님은 정말 저능 아니 그것도 못 미쳐 아주 무능하셨던 것이 아닐까? 특히 세상에서 아무런 죄 없이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면 이러한 생각은 더욱 짙어집니다.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온갖 고통과 악을 모두 없앨 수 있으실 텐데,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이처럼 힘없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느님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런데 오늘 제2독서의 필리피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정말 무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2,6-7)

이처럼 사람으로 오셨어도, 권력과 강력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모진 고문으로 고통을 받으시며 매질하는 자들에게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죄인이 짊어지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십자가를 마주 하십니다.(이사 50,6-7)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세상의 악과 고통을 한방에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왜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시어 수난을 받으실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하느님이 전하시는 사랑의 방식은 아닐까 여겨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전능하고도 강력한 팔을 휘둘러 시시때때로 세상의 죄를 척결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강력함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며 그러한 방식 앞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란 아무 소용없이 기계처럼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모습에서 무슨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공포에 질려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당신의 전지전능을 행사하여 그때그때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 그리하여 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하느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 주시는 하느님, 그러기 위해 연약한 인간으로 다가오시어 수난을 받은 하느님. 하느님의 앞서가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걸어가는데 이 길에서 주저앉지 않고 기운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수난 당일 자신을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 밭살스럽던 그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잠시 혼내 줄 수는 있었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무력한 사람들을 위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분은 그날 무능하고 무력하셨으므로 오늘 힘차게 살아 계십니다.



전주총 요셉 신부 | 사천본당 주임



- 제 1 독 서 이사 50,4-7
- 화 답 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제 2 독 서 필리 2,6-11
- 복 음 마르 14,1-15,47 또는 15,1-39

주일 진레

용서 1: 하느님 사랑을 배우는 길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뺨소니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운전자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저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청했는데 저의 용서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2)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미운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자리에서 미운 사람에 대한 용서와 받아들임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이에 있던 믿었던 배우자나 자식, 이웃의 배신은 진정 받아들이기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앓으나 서나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속 시끄러운 날들을 보낸 적이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용서는 하늘 차원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드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몸소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다시 낙원에 살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천지 창조 때 인간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생명을 주셨듯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성령을 주시며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새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요? 사실 소소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는 쉽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적 피해나 강간, 살인죄와 같이 대죄를 지은 경우 우리는 말처럼 쉽게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머리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용기를 내어 용서를 청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는 용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잊은 채 “네가 신자니 그래도 참아야지!” 혹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당사자를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함께 울어 주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며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요소는 ‘기다림과 침묵’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하느님께서도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4000년이 지난 다음 아드님을 보내셔서 화해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시간이 필요하셨듯이(?) 우리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신도 상대방도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또한 무조건 기도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우, 혹은 아직 미숙한 신앙을 가진 경우 고통 중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원망스럽고 억울한 감정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는 주위 이웃들이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격한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는 고통의 상황이나, 자신이 받았거나 주었던 상처의 의미를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혹은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은총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더 큰 하느님의 선과 그 섭리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용서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 하느님께 말씀드리기”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산 너머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세상살이

그래, 세상의 행복이란 별것인 것 같지만 별것이 아니다. 저렇듯 저녁밥 짓고, 밖에 나간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고, 걱정 없이 잠들면서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알겠니?

여인이 보리 이삭을 치마폭에 주워 담으면서 간난이에게 말했다. 나는 새삼스럽게 보리 한 모가지가 이렇게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한 이삭에서 서른 알의 보리가 나온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흘러버린 이삭이 뜻밖의 덕이 된다는 것도 배웠다. 나도 다시 태어난 것 같다. 하늘도 땅도, 풀도 나무도 다 새롭게 보인다. 이제야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왜 있는지를 안다. 서로를 위해 주기 위해서다.

한

울지 마라. 이 세상살이란 울다 보면 눈물 마를 새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 왜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요? / 우리나라 주권을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 그런데 왜 그것을 빼앗겼어요? / 우리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지.

삼촌(수환), 이겼으면서 왜 울어? / 이긴 것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 무슨 소리아? 이기면 좋고 지면 슬픈 건데... / 아니야, 이겨도 슬픈걸. / 바보. / 바보래도 좋아. 난 이제는 다신 안 싸울래.

선생님, 저는 하느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공부를 합니다. 신부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권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는 것이 주권을 빼앗겨서 그렇다고. / 자, 오늘은 시간을 바꾼다. 넷째 시간에 있는 보건을 이 시간에 한다. 모두 운동장에 모이도록! 선생님이 막내(수환)에게 말했다. 힘을 키워야 한다. 선생님이 고함을 질렀다. 가슴을 펴라! 소리를 힘껏 내! 하나, 둘, 셋, 넷!

“한”은, ‘억울하게 당함’, ‘잃어버림’에 대한 분함에 매몰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증오도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힘이 없어 당하고 잃었음을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게 합니다. 그러나 상대처럼 물리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악순환의 길이 됩니다. 세상 힘이 아닌, 하느님이 주신 존재의 힘, 가슴을 펴고, 나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나다움’의 힘을 키우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한”입니다.

보이는 세상, 보이는 너머 세상

밤에 변소를 간 소년은 무서웠으나 어깨를 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는 감옥도, 고문도, 죽음도 이겨냈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머니, 나도 마음을 한번 알았어요. 무섭다고 했을 때는 도깨비 울음소리처럼 들리던 바람 소리가 마음을 바꾸니까 천사님 말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었어요.

하늘을 보렴. 아래를 보고 건너려면 무섭지만 천주님이 계시는 하늘을 보고 건너면 무섭지 않아. 그날 막내는 하늘을 바라보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하늘이 푸르르면 푸르른 대로, 흰 구름이 떠 있으면 떠 있는 대로 하늘은 아늑하기만 했다. 어쩌다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려드는 날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날은 하늘을 보면 꾸중하실 때의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공손해지는 것이었다.

저는 언젠가 신부님께서 해 주신 강론을 듣고 결심하였습니다. 재물과 생명 둘 중에서 생명을 섬기기로 한 것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소임이 재물이니, 재물을 늘리기 위해 생명을 씁니까?

너희 아버지가 말했단다. 부모란 하느님의 자식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맡아 기르는 책임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마음에 들게 키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에 들도록 키워야 한다고 했지.



밥을 굶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도 굶어서는 안 된다. 이 에미의 소망이 무언 줄 아느냐? 내가 행상 다니는 것이 어린 너희 형제한테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한테는 슬픔 보통이기도 하다. 한 여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몸에 비단옷 걸친 남들을 볼 때 어찌 부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의 집 개를 짓게 하고 물건 하나 팔아 달라고 했다가 문전 박대를 당했을 때 어찌 내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겠느냐. 남의 처마 밑에서 하염없이 소낙비를 피할 때도 슬퍼지고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할 때는 더욱 배가 고파 오지. 그러나 나는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너희 할머니를 생각하곤 했었던단다. 나의 이런 서러운 고통쯤이야 너희 할머니에 비하면 지푸라기 한낱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너희 형제를 떠올리면 힘이 불끈 솟는 것이다. 내한테는 쌀 곳간의 열쇠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하느님이 좋아하는 아들이 있노라고. 그런데 이 철없는 녀석아, 네 지금 그 꼴이 무엇이냐.

막내는 어머니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무명 적삼이 흠뻑 젖도록 울었다.

저 산 너머

어머니, 내 고향은 어디여요? 고향은 포근한 곳이지요? / 그렇게 말한다면 어느 지역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텐데... /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너무도 많아요. 저기 맑은 개울 속에도, 장다리 꽃밭에도, 도라지 꽃밭에도 가 있고요, 저 산 너머에도 가 있고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마음이 가고 싶어 해요. 어머니,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 고향은 저 산 너머 하늘나라예요.

너는 혼자서 어디를 가느냐? / 대구에 갑니다. 하느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느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 했어요. 미끼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 너는 이런 팍팍한 황톳길을 많이 걸어 다니도록 하여라. 사람을 낚고자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황톳길에서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줄 줄 알아야 하고.

-정채봉, 저 산 너머 (김수환 추기경 어릴적 이야기)

정채봉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곧잘 어제에서 ‘오늘’을 보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만, 내일에서 ‘오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기경의 말을 떠올립니다. “사람한테는 세 사람의 자기가 있지요. 한 사람은 남이 아는 자기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자기이며,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자기이지요. 바라건대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남들이 아는 나보다, 그리고 내가 아는 나보다도, 내가 모르는 내가 진실로 나타나서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신성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에서 오늘을 보고자 하고, 이곳에서 저 산 너머를 보고자 한다면, 자기가 모르는 자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덧붙임

‘저 산 너머(2020)’ 영화를 개인이로나 공동체로나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속 풍경과 옛 분들 삶이 아름답습니다. 영화를 꼭 보고 싶으신 분은 iotimanco@cathms.or.kr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책은 교구 성바오로서원에도 있습니다.



교구장 동정

성유 축성 미사

일시: 4월 1일(목) 10:30

주님 만찬 미사

일시: 4월 1일(목) 20:00

주님 수난 예식

일시: 4월 2일(금) 20:00

파스카 성야

일시: 4월 3일(토) 20:0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파스카 성삼일(주님 만찬 미사, 주님 수난 예식, 파스카 성야) 전례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 **재단법인천주교마산교구**

교구/본당

임마누엘 장학회

일시: 3월 30일(화) 10:3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부 말씀 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신청: 3월 31일(수)까지

문의: 성경부 055·249·7026, 010·7479·7026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시: 4월 17일(토) 13:00~18일(주일) 15:00,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통독범위: 루카 복음

대상: 성경에 관심있는 청년,

선착순 20명 마감

참가비: 6만 원

준비물: 성경(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전자기기

어플 제외), 마스크, 텀블러, 필기도구,

세면도구(수건), 미사 준비, 시계

신청: 4월 11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오세피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일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기타

바오로딸 온라인 기도학교 <숨>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배우는 과정

모집: 3월 22일(월)~4월 11일(주일)

시작: 4월 19일(월)부터 5주간

신청: 바오로딸 인터넷 서점/ 참가비: 6만 원

문의: 010·2504·0993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1만 원

문의: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1박 2일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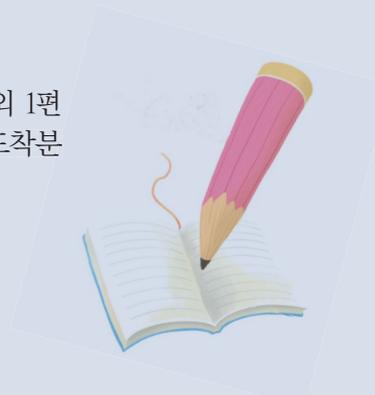
문의: 010·2133·4903

|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시 | 장소 | 문의 | 비고 |
|------------|------------------|------------------|----------------------------|----------------|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4월 25일(주일) 13:00 | 가톨릭 신학대학(서울 혜화동) | korvocation@columban.or.kr | 대상: (만)19세~35세 |

| | | | |
|---------------------------------------------------------------------------------------------------------------------------------------------------------------------------------|---------------------------------------------------------------------------------------------------------------------------------------------------------------------------------------------------------------|--------------------------------------------------------------------------------------------------------------------------------------------------------------------------------------------------------------------------------------|--------------------------------------------------------------------------------------------------------------------------------------|
| <p>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p> <p>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p> <p>마르코 투어 010-5150-2625</p> | <p>진주 양 외과의원</p> <p>- 치핵(치질)/ 변비치료 - 피부 점/ 티눈 제거 수술 - 피부 혹 제거 수술 - 화상 및 상처 치료 - 귀두 표피 환상 절제술 - 각종 예방접종</p> <p>진주시 중앙동 16-16번지 2층 (시내 교육청 앞) TEL. 055) 748-0975</p> <p>조영현 라파엘 박미리 엘리사벳</p> | <p>천차만차</p> <p>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 <p>가톨릭마산</p> <p>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p> <p>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p> <p>■문의: 홍보국 055)249-7072</p> |
|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p> <p>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 <p>신세계피부비뇨기과</p> <p>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p> <p>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p> <p>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p> | | |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교구 소식

광주가톨릭신학대학 입학미사

2021학년도 광주가톨릭신학대학(총장: 김혁태 베드로 신부) 입학미사가 3월 15일에 있었다. 교구에서는 가좌동본당 김찬우(마르코), 대방동본당 이강은(가브리엘), 반송본당 노태현(마리아노) 3명이 입학하였다.



故 김차규 필립보 신부 1주기 추모미사



故 김차규 필립보 신부 1주기 추모미사가 3월 19일 고성 이화공원묘원에서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이 제한되어,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외 교구청 사제들과 유가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황봉철 베드로 신부(원로사목자)의 강론을 들으며, 김차규 신부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였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아브람의 아버지 테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인 칼데아의 우르를 떠나 정착하게 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은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이지만 아브람 당대에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업 도시로서 번성하였고, 또 달의 신인 신Sin의 숭배지로도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브람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창세 12,1-3 참조). 하느님께서 왜 아브람을 선택하셨는지, 과연 아브람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성경 본문은 침묵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으며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람에게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12,1). 하느님의 이 요구는 단지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개인을 지켜줄 수 있는 공적인 치안 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부족의 보호 장치를 상실함을 의미하며, 결국 개인은 심각한 안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이런 요구는 하느님께서 그의 보호처요 피신처가 되심을 신뢰하라는 요구이며, 인간적인 생존 수단에 의존하는 대신 하느님께 의존하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길을 떠난 아브람이지만 하느님의 정의와 일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그 역시도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부르심의 요구에는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는 초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이들만이 하느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이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삶의 주도권을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군지, 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삶의 주도권을 전지전능하신 분께 맡겨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땅”(15,18)과 “땅의 먼지처럼”(13,16; 28,14), “하늘의 별들처럼”(15,5; 26,4), “바다의 모래처럼”(32,13) 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며,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후손과 축복에 대한 하느님의 삼중 약속은 창세기 설화 안에서 아브람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달 신을 믿었던 우상숭배자 아브람은 하느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듣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75세에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길을 떠나는 아브람 편에서는 하느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석녀였고, 그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는 반유목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땅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람의 생애를 요약하면 그는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으며, 99세에 할례를 받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으며, 100세에 이사악이 태어났고, 175세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75세에 길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중년의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하느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도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까?

